

시인 김영랑·매천 황현·백호 임제...

역사속 인물 연극으로 부활

‘역사속 인물들이 부활한다.’
시인 김영랑, 매천 황현, 백호 임제...
지역 출신 역사적 인물들을 소재로 한
연극 작품이 속속 무대에 오르고 있다.
한국의 대표 서정 시인인 ‘모란이 피기
까지’ 작가 영랑 김윤식(1903~1955)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랑아 랑아 영랑
아’는 24일(오후 7시30분) 관객들을 만
난다.



〈김영랑〉 〈황현〉

이 작품은 1942년 구례에서 선생의
고향인 광양으로 묘를 이장하는 광경으
로 시작해, 7살부터 스스로 생을 마치는
마지막 모습을 통해 그의 정신이 현재
에 어떻게 투영되는 지 보여준다.

작품 제목은 황현 선생이 남긴 ‘인
(仁)은 이루었으나 충(忠)은 이루지 못
했다’는 말에서 따왔으며 김창일씨가
희곡을 쓰고 연출, 무대장치를 맡았다.

오는 9~10월께 광양 뿐 아니라 목
포·광주 등 지역 배우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광양에서 다시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황현 선생의 일대기는 소설가 박혜강
의 ‘매천 황현 1·2’(문학동네 펴냄), 한승
연의 ‘매천야록’(한누리미디어 펴냄)으로 형상화되기도 했다.

나주 출신 명문장가이자 풍류객인 백호 임제(1549~1587)
선생 역사 연극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을 만났다.

나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예인방이 무대에 올린 ‘무어
별’은 임제가 남긴 시와 글, 그리고 일화를 각색해 임제와 황진
이를 속 빼앗은 딸 설홍의 사랑 이야기로 변모시킨 작품으로
정민아씨가 희곡을 썼다.

예인방은 올해 제작 예정인 ‘김치’ 소재 작품과 함께 ‘무어
별’을 나주와 전남도의 대표 문화 콘텐츠 상품으로 만들 계획
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지역 출신 인물 소재 목포·강진 등 무대에

23~25일까지 강진읍 영랑 생가 등지
에서 열리는 ‘제 5회 영랑문화제’ 초청작
품으로 영랑문화제 특설 무대에서 공연
되는 ‘랑아 랑아 영랑아’는 영랑 선생의
일대기를 그대로 그리기 보다는 허구적
이야기를 가미, 극적 재미를 더했다.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완)이 제작한 이 작품은 지난해 열
린 제6회 충남공주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에서 대상, 연출
상, 최우수 연기상 등 3관왕을 휩쓴 작품이다.

연출과 주인공 김영랑 역을 맡은 오 대표의 “격동의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순수시의 절정을 이룬 강진 출신 김영랑 시인의
삶이 연극적·음악적 요소로 부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가을께 광주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순국 100년을 맞는 매천 황현(1855~1910)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도 연극으로 만들어졌다.

광양에서 태어나 구례 등을 오가며 성장한 황현 선생은 구한
말 삼재(三才)로 이름을 떨치며 ‘매천야록’ 등을 집필한 인
물로 지난 1910년 8월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자 통분, 절
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했다.

광양에서 활동하는 극단 백운무대는 지난 21일
목포 문예회관에서 전남연극제 참가작으로
‘중이 아니로소이다’를 무대에 올렸다.

▼ 24일 강진에서 공연되는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랑아 랑아 영랑아’



아이들의 장난 그리고 낙서처럼...

장석원 전... 서울 갤러리 '고도' 27일까지

장석원 개인전이 27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갤러리 '고도'에서 열
린다.

갤러리 고도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
번 전시에서 장씨는 크레파스와 연필
등으로 그린 드로잉 작품을 선보인다.

‘나의 드로잉은 심상의 기록이고
유치하며 정형적 예술에 대한 반감의
표시’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그가 이
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초등학생 아
이의 낙서처럼 지극히 장난스럽고,
생똥맞기까지 하다.

덜수룩한 수염에 두 개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그린 ‘무엇이
뵈고하니’ 시리즈와 머리카락 하나
없는 남자가 혀를 낼름거리는 ‘바보’

등은 장난기가 가득하다.
이마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그려넣은 ‘또 하나의 눈’이나
‘머리 긴 여인’이나 ‘女女女’에 등장하
는 미친 여자같은 여성의 모습도 색
다르다.

그밖에 자신의 얼굴을 복사한 종이
위에 파스텔과 연필로 글씨를 쓴 작
품 ‘개자식들, 독종...’ ‘바보, 미친놈’
등은 또 다른 시도다.

홍익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국제아트비
전 ‘아시아 비전’ 총감독 등을 역임했
다. 문의 02-720-222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분좋은 날’

꿈속의 이야기 형상화

박주하 전... 대동갤러리 28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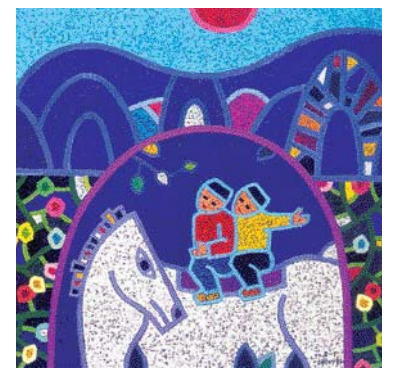
서양화가 박주하씨의 작품에는 뜻
뜻한 남도의 정서가 가득하다. 대상
을 단순화한 붓질과 작품 속에 자리
한 인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박주하씨 작품전이 28일까지 대동
갤러리에서 열린다.

3년만에 다시 갖는 이번 개인전에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박씨의
예술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작품 50여점이 출품됐다.

대표작인 ‘강변 이야기’ 시리즈는
토속적인 향기가 가득한 작품들이다.
누림소와 하늘을 나는 새, 나무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넉넉함을 전하고,
물가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의
모습은 잊혀진 동심이 떠올라 미소짓
게 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기 시작한 ‘공
(空)’ 시리즈와 ‘산사의 아침’ 등은 여
백의 미를 통해 편안함을 전해주고,
꿈속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작품은 동



‘기억의 저편’

화적이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
한 박씨는 지금까지 14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성정책 연구기관 역할 될까

전남여성플라자 개원1돌
오늘 대강당서 심포지엄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이영세·
사진)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23일 오후 2시 여성플라자 2층 대
강의실에서 열린다.

지역 여성 정책 연구 기관의 역
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전국 16개 시·
도의 지역 여성 정책 연구기관 연
구자들이 참여한다.

‘지역 정책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 기관의 역할’을 주
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오미란(전남
여성플라자
정책연구실
장)씨가 각각
‘지역 여성 정
책 기관 현황
및 발전과제’
를 주제로 발
제를 한다.
이어 주경미(부산여성가족개발
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이갑숙(강
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부장),

김학실(충북여성발전센터 연구개발
팀장), 정영태(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연구원)씨 등이
각 지역의 성주류화 사례와 실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덕순(여수 한영대
교수), 김옥(전남보건진료원 회
장), 김대성(전남발전연구원 인
력·사회연구팀장)씨가 나선다. 문
의 061-287-33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주일영투어와 함께 떠나는

안락산등반/올레길/달랑

안락산 일출세 특별식음 (1박2일)
1인 79,000원 (4인기준)

| 제주올레길 | 안락산등반 | 올레길/달랑 |
|--------------------|--------------------|-------------------|
| 1인 135,000원 (4인기준) | 2인 135,000원 (4인기준) | 1인 89,000원 (4인기준) |

제주일영투어 T. 064-727-2277

SINCE 1988

칠만표방수제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재벌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방수면 100% 보증수주!!
방수보증수주는 거짓말을 못하구요

토양, 지하수, 침투, 누출, 수질 등 원인을 정확히 분석
최신 공 도막과 방수소재로 구조 적합방수제를 합니다.
특히 물 유출은 건축역사나 문화유산은 방지 됩니다

방수면 100% 보증수주
방수면 100% 보증수주
방수면 100% 보증수주